날마다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참모습 실상 깨닫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보살이 깨달음의 지혜의 빛을 감추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속 사이에 태어나시어 중생과 인연을 맺어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이 땅에 오셨으니 사바세계 중생들에게는 더 없이 기쁜 축복의 날입니다.

불제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참 모습의 실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조차 없이 머리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생구제 입으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더 이상 말로 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불제자를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바라보시며 계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평화 구현을

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혜인 스님



눈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진다. 남산의 소나무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계평화와 자유,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직위고하의 차별, 임금과 신하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세계를 말한다.

세속의 종교는 차별이 있으나 부처님 경계에서는 대자유와 평화만 있을 뿐이다. 태양이 누구에게나 빛을 주지만 태양은 주었다는 생각 없이 빛을 발한다.

자유세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와 기회, 정의로운 사람의 희망 역시 평화였다.

"상생 삶 살며 행복 얻자"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라는 큰 뜻에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며, 생사고락이라는 원리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며, 그로부터의 깨달음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으니 자비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꽃동산이요, 모든 생명이 부처님 나투심입니다.

뭇 생명이 삶의 주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불기2563년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거룩하고 경사스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누리가 빛이요, 뭇 생명이 모두 삶의 주인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는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백가쟁명 속에서도 원융화쟁의 도리가 있듯이 우리모두가 부처임을 깨닫게 되면 찬탄과 환희의 세계는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면목 찾는 날

대한불교 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오신 뜻 깨치는 날
부처님은 진리의 몸(法身)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셔도 태어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멸하셔도 가셨음이 아닙니다. 중생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 오고감에 걸릴 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물은 언제나 흐르건만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 옳다 글타 하며 삽니다.

본래에 갖춘 면목(佛性)을 찾는다면 억만 부처님과 함께 모두가 큰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 오신 뜻을 깨치어 본래 부처인 자기 자신을 찾는 날입니다.

모두 모두가 부디 부처님이 되십시오.

팔복전 공덕 짓자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세존응화 30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
불보살님 가피력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가 융창하여 온 국민이 희망을 되찾게 하소서.

불교계 고승대덕과 출가재가 사부대중 불자들은 불국토 중흥을 위하여 각처에서 연등불 밝혀 일심봉청으로 축원 올려 천지광명 원력발원 세웁니다.

옛 성인은 말씀 하셨습니다. 미래 생에 부귀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미리 복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데는 8가지 팔복전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 광명 퍼지길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거룩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몸은 광대무변(廣大無邊)하여 시방세계에 꽉 차서 없는 곳이 없으니 저 가없는 허공도 대해(大海) 중의 좁쌀 하나와 같이 적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부궁하여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우주가 없어진 후에도 항상 계셔서 과거가 곧 미래요, 미래가 곧 현재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신묘불측(神妙不測)하여 상대의 욕망에 따라 천변만화 무수(千變萬化 無數) 의 형태로 몸을 나투어 일체를 이익하게 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기묘난사(奇妙難思)하여 이광명 속에서는 설사 백천일월(百千日月)이 일시에 비추어도 대낮의 촛불만도 못합니다.

이 땅 위에 극락정토 실현을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불기2563년 전 4월 초8일 부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개시오입(開示悟入)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다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 봉행하여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본래 청정했던 참마음 되찾고 모든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여불공경하고 동대체비(同大體悲)함체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고, 가는 곳마다 풍요롭고 안락한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이 땅위에 실현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이 거룩한 모습을 역력히 바라보며 길이길이 찬양합시다.

인연공덕 소중히 여기길

생활불교조계종
석도선 스님



오늘은 4월 초파일이라 부처님 오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부자님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불성 한 물건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한번 태어난 육신은 사대(지,수,화,풍)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연이란 이렇게 표현하렵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인연 공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평화 찾도록 노력하자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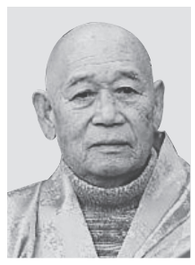
기해년 부처님 봉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구류중생과 더불어 안심입명의 변화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보고 본래의 청정을 찾으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 날마다가 부처 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합시다.

마음깨우쳐 성불하세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현각 스님



오늘은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마땅히 봉축해야 할 일이지만, 그전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불교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서 성불하라고 지금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불하여 날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합시다.

팔엽연화 피우자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불기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중생들이시여, 눈(眼)이 청정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귀(耳)가 청정하면 가릉빈가의 노래 소리 듣느니라, 코(鼻)가 청정하면 삼라만상 연화향을 맡음이로다. 혀(舌)가 청정하면 내는 소리 모두 불음이로다. 몸(身)이 청정하면 일체중생이 보기를 원하노라.

마음(意)이 청정하면 자타 모두 부처님이로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어 팔엽연화 활짝 피웁시다.

